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순천시의회에서 '전남동부권 6대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제철소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운영 현황과 향후 전력 수급 계획 등을 청취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16일 전남 순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남부리기업협회 회원사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영록·강기정·민형배, 전남 동부권 표심 공략

## 순천·여수서 공약전...의대·산단 재편 놓고 공약대결 미래산업·의료·관광 청사진 제시...핵심 승부처 부상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전남 동부권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별 TV토론을 하루 앞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와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국회의원은 순천과 여수를 무대로 각각 반도체, 국립의대, 산단 재편과 관광 활성화 구상을 내놓으며 동부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지역 공약 발표를 넘어 동부권의 미래 산업 지형과 의료 인프라, 광역 교통망, 관광 전략까지 아우르는 구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이 전남광

주특별시 출범 이후 핵심 성장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도 지역 현안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 6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동부권 산업이 탄소 규제와 산업구조 변화로 전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진단 아래, 석유화학·철강 중심 구조를 반도체와 수소 산업 중심의 첨단 미래 산단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광양·순천 일대 RE100

국가산단을 기존 120만평에서 200만평 규모로 확대해 첨단 미래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동부권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3차 축 산업 구조를 토대로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풀사이클 생태계를 구축하고, 광양만권을 AI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기능·고용량 첨단 반도체 양산·수출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행정과 공공기관 기능 강화도 함께 꺼내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특별시 3개 주청사 가운데 하나로 예정된 동부청사를 확대 개편해 민원·행정 기능을 넓히고, 환경관리공단·수협중앙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공공기관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제2 우주센터 유치와 연계해 경남 사천, 순천, 광양을 잇는 우주·방산·항공 벨트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부권 100만 도시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하며 맞붙을 났다. 강 시장이 가장 앞세운 의제는 의과대학 문제였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대 설립 논란에 대해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며,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에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동부권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대신 목표에는 통합 대학본부와 함께 4차 병원을 유치해 서부권 의료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의대와 병원을 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나눈 배치안을 통해 지역 갈등

등을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부권 산업 전략으로는 광양만과 여수산단을 무단소 전력 산단으로 개편하고, 순천에 반도체 생산공정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이 이날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를 축으로 한 동부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산단과 관광을 두 축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역설했다. 민 의원은 "여수산단을 탄소중립·AI·첨단화학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노후 화학설비를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해 생산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미래형 스마트 제조 산업단지로 전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국제 크루즈 관광 허브 조성, 해양레저 산업 확대, 야간관광 활성화,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객 등을 묶어 산업도시 여수의 제질을 관광·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해양복합도시로 바꾸겠다는 그림도 제시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유력후보들의 잇따른 방문 행보는 동부권이 이번 특별시장 경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무단소 산단,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우주·방산, 관광과 교통망까지 지역 현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만큼,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느냐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주철현 "내외국인 카지노·경정장 유치하겠다"

### 해외 카지노 관광 수요 국내 흡수...동북아 관광 거점 구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이 관광·레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철현 의원은 16일 "현재 국내 카지노 제도는 외국인 전용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관광객 상당수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 카지노 관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관광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동북아 관광 시장 경쟁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오사카 인공섬 유메시마에 대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MGM 오사카 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사업

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카지노 관광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일본이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며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남과 광주의 해양·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복합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관광 수요를 국내로 되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도입에 따른 사행성 논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공공 관리 체계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카지노 운영을 엄격히 관리 시스템 아래 두고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세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또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모터보트 경주를 기반으로 하는 경정장을 도입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과 국제 관광 이벤트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풍부한 해양과 문화 자원을 갖춘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카지노와 해양레저 산업을 결합한 복합 관광·레저 산업을 통해 동북아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미래 비전 9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 "AI·첨단산업·문화 함께 성장 미래 융합도시 광주 건설할 것"

### 신정훈, 미래 핵심 프로젝트 공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이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서 시작되는 대전환, 전남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며 광주 미래 혁신 9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 등을 담은 광주권 비전과 함께 20조 원 규모 재정 활용 구상과 1조원 규모 청년 창업·도전 펀드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그가 광주권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미래 혁신 9대 핵심 프로젝트는 기술과 문화, 산업, 청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와 첨단산업, 문화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공형 이전 부지 중심의 로봇·AI·자율주행·첨단모빌리티 산업 캠퍼스 조성을 추진한다. 광주를 대한민국 로봇 수도이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또 광주권·영산강 르네상스를 추진한다. 수해와 침수 위험이 반복되는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복개하천

복원과 하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주권과 영산강을 따라 수변공원, 보행 네트워크, 문화공간을 연결한 도심 주변 문화벨트를 조성해 원도심을 살리는 생태와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생태·미식 관광 플랫폼 구축, 총장급 글로벌 E-스포츠·디지털 문화산업 거점 조성, 청년 창업 허브 도시 육성, BRT 중심 교통 혁신, 디지털·AI 금융 융합 복합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광주권역 연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나주를 에너지 기술 클러스터, 화순을 바이오 메디컬 산업 거점, 담양을 생태문화 관광 도시, 장성을 데이터센터·AI 전략 거점, 함평을 RE100 데이터센터·AI 농산업 거점, 영광을 청정에너지·미래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각각 육성할 방침이다. 신 후보는 향후 4년간 20조원 규모로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재정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지원되는 재정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어민·소상공인·노동자·돌봄노동자 등 지역 공동체의 삶을 살리는 데 우선 투입하겠다"며 "시민·전문가·차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특별시 투자협의회'를 통해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브리핑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3선 도전 "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행정통합 시대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첫 임기는 남구의 뼈대를 세우고, 두 번째 임기는 살과 근육을 붙였다면 세 번째 임기는 활기와 색깔을 붙여넣고 싶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는 지역발전의 아주 좋은 시기"라고 언급했다. 남구 발전 5대 미래 비전으로는 △초연결 융복합 허브 도시 육성 △첨단산업 기반 자족형 경제도시 △청년들이 찾고 머무는 도시 △역사와 생태가 살아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 △도시재생과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완성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320만 통합특별시 시대 속에서 남구가 중심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21만 남구민과 함께 남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정다운 북구청장 예비후보 "대표도시 복구 건설 최선"

더불어민주당 정다운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16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광주특별시 대표도시 복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선언과 함께 '북구제 일주의'란 슬로건 아래 5대 목표 및 15대 핵심과제를 내놴다. 그는 "광주와 전남 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를 광주특별시 대표도시로 만들겠다"며 "은정주의 5·18 정책 개혁 시도 및 5·18 통합 조례 제정 등 행정혁신을 증명해낸 경험으로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가 공개한 5대 목표는 북구제일주의 선언, 가치와 성장이 공존하는 도시 △행정통합 대전환 시대의 가장 적극적인 변화 주도 △빠른 행정과 더 큰 주민 만족 △특별한 사회안전망과 평안한 복지체계 △선제적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이다. 15대 핵심과제로는 자영업자 반값 임대료 지원, 대학가 활성화, 북구 명칭 변경, 행정복지센터 예산 자율권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 등을 내 걸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 "전남 국립의대 목포대 결정을"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최적으로 목포 송림캠퍼스와 옥암 의대부지를 제시하며 교육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16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가 확보된 목포 송림캠퍼스와 옥암 의대부지가 전남 국립의대의 최적지"라며 "교육부는 전남 국립의대를 목포대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의대 정원 100명이 확정됐고 2030년 개교가 전망된다"며 "목포대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대학설립 규정에 따르면 신규 대학 건물은 대학 소유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전남 국립의대는 37년 동안 이어져 온 목포 시민의 숙원이다"며 "목포에서 시작해 전남 공공의료의 새 미래를 여는 길에 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